

통합유럽의 정체성과 이주민*

— 게오르크 짐멜과 에티엔 발리바르의 이방인론을 중심으로

구 언 정 (서울대)

I. 들어가며

유럽의 지식인들은 매우 오랫동안 여러 상징으로 정형화되고 이상화되는 유럽의 이미지들을 찾아내었고 마치 그것이 하나의 유럽에 대한 신화적 원형을 증명해 주는 듯한 애정을 보내왔다. 에우로페 신화 이후 주로 처녀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유럽 여체의 모습은 마치 하나의 신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유럽 각 지역의 유기적 통일성을 상징하고 있다. 스위스 출신의 유럽주의자 드니 드 루즈몽(Denis de Rougemont)의 경우 “유럽의 문화적 통일성은 창조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처음부터 존재해 왔고 수세기 동안 보존되어 왔다.”라고 하면서 태곳적부터 형성된 ‘하나의 유럽’에 대한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는다(헬름라트 2011, 8 참조). 나아가 그는 역사적으로 유럽이 하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몽주의와 르네상스, 더 거슬러 올라가 중세의 대학들과 또 심지어 플라톤을 증인으로 불러낸다. 특히 그는 통합유럽의 기원을 고대 너머로 거슬러 추적하면서 ‘28세기 동안의 유럽 28 Jahrhunderte Europa’을 역사적으로 그리는가 하면, 하나의 유럽이란 생각은 서구 역사와 문화의 모든 탁월한 인사들이 지난 천 년 동안 승인해 온 이상임을 강조한다(Vgl. Rougemont 1961, 51f.). 그의 논제들에 따르면 마치 하나의 유럽이 수천년의 역사 동안 자생해 왔고, 18-19세기 민족주의의 등장으로 위기를 겪었

* 이 논문은 2015년도 독일유럽연구센터(ZeDES)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지만 이제 1945년 이후 추진되고 있는 다방면에서의 실질적인 통합의 실천 아래 현대적으로 변모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유럽이란 이념을 역사적으로 추적한 장 바티스트 뒤로젤은 동시대적 관점에서 통합유럽의 형성을 보다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것으로 투사시킨다.

내가 볼 때 이 통합유럽은 어떤 내재적이고 유서 깊은 현상이라기보다는 쿠든호 베-칼레르기 백작, 장 모네, 알치데 데 가스페리, 콘라트 아테나우어, 로베르 슈만, 그리고 일단의 저명인사들의 고안품이다. 나는 신이 유럽을 창조했다거나 또는 신이 프랑스와 독일을 창조했다고는 믿지 않는다. 프랑스, 독일, 유럽은 인간의 발명품이고 정치 단위로서의 유럽이라는 발명품은 프랑스나 독일보다 훨씬 더 늦게 탄생한 최근의 일이다.(뒤로젤 2003, 14)

이와 같은 뒤로젤의 입장은 유럽의 각 민족이나 국가가 오래전부터 하나의 통합되고 단결된 유럽이란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서로 갈등하고 결투하는 관계에 있었으며 바로 그와 같은 역사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에 따르면 오늘날의 ‘하나의 유럽’이라는 통합유럽의 형식은 무엇보다 1945년 이후의 파괴와 폐허더미 위의 유럽을 배경으로 출발하였고 그런 만큼 ‘하나의 유럽’이란 정체성은 고대 너머의 신화에서부터 이미 원형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삶을 위한 ‘발명품’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것도 최근에 고안된 발명품이며 그런 만큼 통합유럽의 정체성은 오랜 전통 속에 완결된, 어떤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현재 만들어지는 중이며 앞으로도 변화무쌍하게 만들어질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하나의 고안물’로서 통합유럽의 정체성을 인정한다면, 1992년 이후 하나의 초국가적 정치적 연합체로서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는 시대가 시작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유럽의 정체성의 방향은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요청에 대한 하나의 응답으로서 에티엔느 발리바르는 2001년 『우리, 유럽의 시민들?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재발명』에서 바로 새로이 구성될 유럽에 대한 성찰을 전개하였다.

여기서 발리바르는 “유럽에는 단 하나의 공동의 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공동의 집들이 존재한다.”(발리바르 2010, 280)라고 하면서 유럽의 새로운 정체성으로서 ‘이주자들이 만나는 지점’으로서 개방된 유럽이란 구상을 강조한다. 이는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진 민족체들이 차이를 유지하면서도 하나로 연결되고 복수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화합할 수 있는 국가를 초월한(transnational) 다문화적 공동체 사회를 가리킨다.¹⁾ 이와 같은 유럽의 새로운 정체성은 무엇보다 유럽 역사에서 상수로 존재해왔던 이주민들의 자리를 확인하고 오랜 시간 동안 유럽을 같이 형성해 온 이주민들을 유럽 구성의 일부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유럽연합의 상황을 보건대 발리바르의 통합유럽의 새로운 정체성 구상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은 듯 보인다. 경제가 성장할 때 유럽은 큰 저항없이 하나의 유럽이라는 사회적 통합에 성공적으로 다가가는 듯하였으나, 발리바르도 경계한 것처럼, 내적으로 존재하던 ‘철폐할 수 없는 다수의 경계들’은 경제 위기 이후 유럽연합 내에 잠재해온 국가적 민족주의적 경향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고(구연정 2015, 107 이하 참조) 이제 엄청난 수의 난민유입이라는 사태 앞에서 ‘하나의 유럽’은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처럼 보인다. 그리스와 발칸 반도 사이에는 철조망의 경계가 쳐졌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몇몇 회원국은 다시 국경 초소 Kontrolle를 세웠으며, 영국은 지난 6월 24일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결정하였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의 국경 지대에 다시 세워지는 국경 통제탑은 단순히 난민에 대한 방어벽이라는 현실적 의미를 넘어서, 통합유럽의 균열이자 비유럽인을 배제하고 유럽을 요새화하는 징표로 보인다(Vgl. Der Spiegel, 15. 3. 2016). 또한 그것은 오랜 유럽의 가치, 즉 인도주의적 가치의 균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데, 소위 유

1) 물론 발리바르가 이와 같은 새로운 유럽의 구성의 모범으로서 미국과 같은 이주민 사회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이주민화는 현재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용광로이론(melting pot)이 말해주듯 정책적으로 다양한 문화들을 하나의 용광로 속에 넣어 차이를 녹이고 통일시키는 것, 즉 ‘동화’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각자가 출발했던 민족체의 차이를 지우고 주인사회에 동화되어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을 전제한다(Vgl. Schütz 1944, 507).

럽의 ‘안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의 이주를 합법적으로 막는다는 비인도적인 결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²⁾ 이처럼 ‘하나의 유럽’은 그것을 지향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또 그것을 담보하는 실질적 가치에 있어서도 붕괴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 거듭되어온 위기 속에서 유럽은 이제 난민 유입을 맞아 마치 난파 직전의 타이타닉 호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하나의 유럽’의 위기의 원인을 두고 이주민의 유입과 이슬람의 위협을 가리키고 있다. 마치 영국이 브렉시트의 결정을 이주민 탓으로 돌린 것처럼 말이다(Vgl. Guess: *Süddeutsche Zeitung*, 28. Juni 2016).

그렇다면 실제로 많은 유럽주의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주민의 유입과 유럽의 개방성 문제가 유럽의 실질적인 위기를 가져왔는지, 아니면 적어도 위기의 징후들을 가속화시켰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위기의 징후만 해도, 2008년 이후 경제위기 이후 가속화된 유로위기와 유럽 회의주의, 2014년 난민 유입에 대한 대처에서 분열된 입장과 그로 인한 국수주의의 출현,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Vgl. Becker: *Der Spiegel*, 25. 12. 2015).

이런 위기의 현상들로부터 유럽의 분열을 가속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추론해 보자면, 무엇보다 이난민에 대한 거부감이 국민국가로 회귀하려는 경향과 비례하여 나타나는 것이 주목된다. 특히 EU 회원국 가운데 반이민자 정서가 높을수록 유럽 회원국 내 반EU 정서 또한 높아진다는 통계는 이와 같은 상관관계를 잘 보여준다(송태수 2011, 15-58 참조). 그렇다면 실제로 이난민의 유입이 대량실업 등 유럽 경제 및 사회의 위기를 가져왔는가 하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가령 1960-70년대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던 외국인노동자는 유럽의 경제발전의 촉진제나 다름없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시민들이

2) 시리아 난민에 대해 유일하게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던 독일의 메르켈 수상마저도 유럽 내 외교적 고립으로 인해 애초의 난민 포용정책을 견지하지 못하고 터키 송환해결책을 제시하고 지난 3월 EU 이사회 및 터키 회담에서는 마침내 그리스에 억류되어 있는 난민들을 터키로 강제 송환하는 협약이 체결된다(Die Zeit, 18. 3. 2016).

반이민 정서로 결집되면서 극우정당의 지지층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이후 독일과 프랑스, 북유럽 등의 선거 결과에서 극우주의 정당이 높은 지지율을 얻은 것은 이와 같은 상관관계를 그대로 방증하고 있다(윤성원 2016; 장선화 2016; 오창룡 2016, 587-629 참조). 이민자와 외국인들은 유럽 사회에 항존하고 있었으나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가져온 원인으로 지목됨으로써 반이민자, 반외국인 정서가 높아지고 극우주의자들의 반EU 프로파간다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즈음에서 다시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의 유럽’이라는 미래지향적 컨셉에서 실제로 이방인, 이주민의 존재가 통합유럽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유럽을 위기에 빠뜨리는가 하는 문제이며, 더 본질적으로는 이주민은 유럽 사회에서 어떤 존재론적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유럽연합의 사회적 통합과 연대를 위해 수행된 정책 및 제도가 애초의 예상과는 달리 실패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차원에서 수행되었던 유럽 ‘공동의 정체성 만들기’ 프로젝트로서 유럽 시민의식의 확대를 위한 ‘유럽 시민권’ 제도나 EU 차원의 외국인정책으로서 공동이민정책 등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여러 유럽주의자들은 이미 EU의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것 중 가장 문제적인 것으로서 EU의 이민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심지어 발리바르는 일찍이 EU의 이민정책에서 EU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새로운 ‘유럽의 인종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를 꿰뚫은 바 있기 때문이다(발리바르 2010, 274 참조).

본 논문에서는 오늘날 통합유럽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유럽사회의 국민국가로의 회귀와 반이방인-반이주민 경향에 있다고 보고 우선 유럽 역사에서 상수로 존재해 온 이방인의 의미를 유럽적 정체성과의 구조적 연속성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이방인 협회가 정점에 달했던 20세기 초 유럽사회에서 이방인의 존재와 의미를 선구적으로 다룬 게오르크 짐멜의 짧은 에세이 『이방인 Exkurs über den Fremden』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출발하여 오늘날 유럽에서 목도되는 반이주민주의의 문제점을 EU의 제도적 차원의

문제점으로 분석한 발리바르의 ‘이방인’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에서 유럽적 정체성을 증진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이주민 정책 및 유럽 시민권 제도 등에서 나타나는 이방인 혐오와 반이주민 경향을 밝히고자 한다.

II. 이방인으로서 유럽인: 짐멜의 「이방인」(1908)

오랫동안 유럽의 이방인은 유대인이었다. 2000년간 떠돌이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유럽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고, 그들의 영토, 유대인 분리구역인 게토에서만 허용된 삶을 살았다. 프랑스 인권선언 이후 처음으로 유럽의 이방인들-유대인들은 유럽 사회에 정착하고 시민권과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며 이성을 중심으로 한 계몽주의적 환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함으로써 독일인 또는 프랑스인으로 살 수 있었다. 이때 “민족/국민은 계급보다 더 열려 있었다는 사실”(홉스봄 1994, 61)이 간과되어선 안 된다. 서구의 국민국가라는 틀은 게토에 살던 이방인들이 유럽사회로 편입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었고, 때문에 다수의 유대인들도 자신의 문화와 전통을 버리고 당시 형성되던 국가에 적극적으로 동화되고 세속화되었던 것이다(최운영 2013, 36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민족-국민국가의 형성은 필연적으로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더 강력한 경계와 바깥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외국인의 대량 이주나 난민 유입이 있는 경우 그러한데, 그 이유는 국민을 정치적 주체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타지인 외국인과의 경계는 더욱 뚜렷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19세기 말 민족주의는 바로 막 탄생한 국민을 정치적 주체로 만드는 일에 치중하게 되었고, 당시 발전한 유전학에 힘입어 인종주의와 결합하면서 소위 전투적 민족주의로 변질되고 만다(홉스봄 1994, 160 참조). 이러한 변질된 민족주의는 당시 사회에서 나타나던 여러 위협의 징후들의 배후로서 유럽의 오랜 거주자이자 이방인이었던 유대인을 지목함으로써 정치적 반유대

주의, 즉 인종주의로 확산됨에 따라 동화된 유대인조차도 구분되고 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유대인이 가장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었던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첨예하게 갈등상황으로 표출되었고 이후 사악한 이방인으로서 ‘개념화된 유대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바우만 2013, 85 이하 참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럽 사회에서 ‘사악한 이방인’ 상은 그 주인사회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 다시 말해 이방인은 존재론적으로 원래 낯선 자가 아니라 주인사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사회에 철저히 동화된 삶을 살았던 짐멜은 스스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별로 느끼지 않고 살다가 19세기 말 해명할 수 없는 일련의 사회적 위기 속에서 유럽사회에 이종공포증이 급속히 퍼져감에 따라 스스로가 이방인 유대인임을 감각스럽게 확인해야 했다.³⁾ 여러가지 사회적인 또 개인적인 경험에서 1908년 짐멜은 「이방인에 대한 소고」라는 짧은 글을 쓰게 된다. 여기서 짐멜은 유럽의 이주민을 한마디로 ‘낯선 자 *Der Fremde*’, 이방인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외국인과 구분하고 있다. 외국인은 국적에서 구분되는 것이지만 ‘이방인’이라는 존재 규정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이물질과 같은 존재라는 것, 주인 사회의 구성원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 또 그들과 ‘다르다’는 점, 즉 타자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⁴⁾ 이 글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구 근대 국가 형성에서 국민의 일부로서 보호받았던 이주민들의 존재가 변화된 유럽적 상황에서 어떻게 타자화되고, 적대시되는지 통찰력 있게 제시된다. 이때 이주민은 당시 유럽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던 유대인을 가리키는데, 마침내 유럽에서 정착지를 찾았지만, 여전히 낯선 존재라는 이중성이 짐멜이 유럽

3) 기독교적 독일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사회학자로서 명성도 컸지만 교수 임용에서 번번이 떨어졌던 개인사는 그에 대한 명백한 예시로 볼 수 있다. 1908년 막스 베버가 짐멜을 하이델베르크 철학교수직에 강력히 추천했음에도 바덴 주 문화부는 짐멜을 탈락시켰다. 당시 짐멜에 대한 평가서는 저명한 역사학자 디트리히 셰퍼에 의해 씌어졌고 거기에는 반유대주의적 입장이 공공연히 표명되어 있었다(이용일 2009, 196 참조).

4) 무엇보다 짐멜은 이방인을 ‘낯선자 *der Fremde*’로 규정한 데에는 독일사회에 철저히 동화된 그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규정되었을 때 느꼈을 ‘낯선’ 느낌을 반영한 듯 보인다.

의 이방인의 성격을 성찰하는 데 끊임없이 반추되고 있다.

그로부터 짐멜의 ‘이방인’에 대한 정의는 공간적 규정에서 출발한다. 이방인은 “오늘 와서 내일 떠나는 유랑자가 아니라 오늘 왔다가 내일 머무는 자” (짐멜 2005, 79)⁵⁾로 정의하고 있다. 먼 곳에서 와서 머무므로써 이방인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짐멜은 이방인의 의미를 ‘오늘 왔다가 내일 떠나는 유랑자’와 구분하고 있다. 이방인은 다른 곳에서 왔다가 돌아가기 때문에 ‘낯선자’가 아니라 여기에 ‘머물기 때문에’ 낯선 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외국인이 한국에 왔다가 돌아가는 경우 외국인이자 여행객이지만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머물 경우 그는 낯선 자가 되고 또 이방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짐멜은 이방인에 대한 첫 번째 정의를 공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선 ‘다른’ 사람이란지, 모르는 사람이란지 하는 타자성을 강조하는 ‘주인사회’의 시선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다.

나아가 짐멜은 이방인을 ‘가깝고도 먼 존재’라고 정의한다. 이곳에 머무는 한 가깝게 느껴지지만, 이곳에 완전히 귀속될 수 없다는 점에서 먼 존재이다. 이와 같은 (이방인의) 존재형식에서 공간적 거리에서 출발하는 인간관계의 상반된 조건, 가까움과 멀이 합일을 이루게 된다.

인간들 사이의 모든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가까움과 멀의 합일은 여기서 가장 간결하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관계 속의 거리란 가까운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방인 됨은 먼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방인 됨은 자연히 아주 긍정적인 관계, 즉 상호작용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 만약 시리우스 별의 주민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이방인이 아니다. 적어도 사회학적 의미에서는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멀과 가까움의 저편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짐멜 2005, 80).

5) 원전은 번역서(게오르크 짐멜, 「이방인」,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 윤미애 옮김, 새물결 2005)를 참고하되 독일어 원문(Georg Simmel: Exkurs über den Fremden, in: Soziologie. Untersuchung über die Formen der Vergesellschaftung, Berlin 1908, S. 509-512)을 참조하여 인용한다. 우리말 번역은 부분 수정할 수 있다.

여기서 짐멜은 이방인을 멀리 있기만 한 외국인과 구분하고 있다. 그 구분의 기준은 공간적 거리에서 파생한 심리적 거리를 포함한다. 시리우스 별의 주민들은 멀리만 하기 때문에 관계 저편의 존재라면, 이방인은 먼 곳의 사람이긴 하지만 이곳 정착사회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이웃처럼 가까운 존재이며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또한 정착사회에 완전히 귀속될 수 없다는 점에서 먼 존재이기도 하다. 결국 이 가까우면서도 멀다는 공간적인 이중성은 이방인이 정착사회와 맺는 이중적 존재형식을 낳게 되고, 이방인과 공존의 형식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해 반발하고 거리를 두는 기제들을 낳게 되는 것이다(짐멜 2005, 80 참조).

먼저 짐멜에 따르면 멀다는 것은 이방인이 타자화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착사회에 완전히 귀속되지 않음으로 인해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그 영역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나온 것이 아닌, 아니 나올 수도 없는 특성들을 그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짐멜 2005, 79) 것이다. 여기서 낯설다는 것은 오히려 정착사회와의 ‘특수한 상호작용의 형식’이 된다. 이 상호작용을 통해 이방인은 집단의 구성원들과 공존할 수 있다. 이런 공존의 형식 속에 머물러으로써 이방인은 자신의 문화를 그곳에 섞여들게 한다.

이처럼 짐멜은 이방인의 타자성을 정착사회와의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간파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 삶의 터전을 바꾸어 새로운 공간적 장소에 머물게 된 자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주류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이용일 2009, 186)는 것이다. 가령 정착사회의 관습적, 전통적인 문화에 결코 그 사회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방인의 ‘다름’의 문화가 섞여들게 되고 이는 문화적 혼종성을 넘어 제 3의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는 유럽 역사만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2세기 이슬람 문화와의 교류없이는 스킨라 철학의 생성을 생각하기란 불가능하다. 이처럼 이방인의 낯선 문화와의 상호작용은 유럽 문화의 풍요로움의 원천을 이루는 것이었으며, 때문에 “유럽인이자라면, 언제나 또한 번역자이기도 한” 것이다(Sloterdijk 2002, 35 참조).

그러나 이 다름의 문화는 언제든지 이방인과 주류 집단 사람들 사이의 가까움을 파괴하는 데 작용하기도 한다. 가령 이방인과 주류 집단 사이의 가까움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특징을 공유할 때 특별한 ‘가까운’ 감정으로서 생기는데, 만약 이 공유되는 특징이 보다 더 큰 또다른 집단과도 공통적일 때 집단 내에서 이방인과 공유하던 가까운 감정은 사라진다. 다시 말해 주인집단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공통성에 기반하여 가까운 감정이 생기지만 이 공통성이 특별함을 잃고 보다 큰 범주의 집단과의 공통성으로 확인되는 한, 이방인에 대한 감정은 차가워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관계로부터 그 유일성의 감정이 사라져버리는 순간에 소외가 나타나는 법”(짐멜 2005, 85)이며 이때 소외는 “[...] 더 보편적인 것에 근거해서 배제당하는 낮은 삶의 종류”(짐멜 2005, 86)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큰 범주의 보편적인 것만 공유한다는 생각으로부터 오히려 이방인의 다름이라는 특성이 강조되는 상황이 나타남으로써 이방인에 대한 ‘먼’ 감정이 생기고, 이는 낮은 존재인 이방인을 배제하는 소외의 감정이 된다.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이방인은 오히려 (...) 가까이 있으면서 동시에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단지 전적으로 보편적인 것만을 공유한다는 의식 때문에 오히려 공통적이지 않은 요소[다름의 요소: YJ]가 특별히 강조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가까움과 멀 사이에는 특별한 긴장이 생긴다.(짐멜 2005, 87)

이방인의 다름이 부정적으로 부각될 때 주류 사회와 이방인의 공존의 형식은 다른 양상, 즉 갈등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이방인에 대한 가깝고도 먼 관계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이방인의 다름을 부각시키고 종종 위기를 가져온 선동자, 사회의 ‘적대자’로 간주되기도 한다. 일반적인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다름’의 문화가 ‘상징적 형식’ 등으로 눈에 띄게 될 때, 정주사회와 보편적 공통성을 매개로 맺어진 관계는 위태롭게 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이방인을 한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식의 삶의 형식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 형식으로서 짐멜은 아웃사이더 혹은 적대자로서 이방인의 삶을 언급한다. 여기서 짐멜은 주인사회의 집단과 이방인의 공존의 형식을 규정했던

다음의 특성이 바로 이방인에 대한 거리를 두고 반감을 갖게 하는 기제들로 뒤바뀌는 역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당시 독일사회에서 독일인들과 이주자 유대인들은 큰 문제없이 공존할 수 있었고 또한 다른 문화와 독일 사회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면에 또 낯선 사람과 문화에 대해 거리를 두거나 반감을 갖는 정서가 잠재적이지만 향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9세기 말 유럽사회에 불안과 위기, 위협의 상황이 도래하자 150년간의 평화로운 공존은 서로 ‘만’ 관계로 바뀌고, 유대인들은 어떤 정확한 증거 없이 이 많은 위기의 징후를 선동한 적대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반감, 혹은 짐멜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만’ 감정을 품고 있는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일 수가 없다. 짐멜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관계는 관계도 아닌 것이다 *die Beziehung zu ihm ist Nicht-Beziehung*”(짐멜 2005, 86).

이처럼 한 집단과 이방인의 특수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방인은 한때 정주사회와 큰 문제없이 지낼 수 있었겠지만, 어떤 계기가 허용되면 그들의 다름이 “특별히 강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방인은 험사리 사회 내부의 소요나 불안, 폭력 사태 등을 사주했다고 간주되는 적대자로 지목될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대가는 그 사회로부터 추방이다. 추방은 이방인에게 가장 두려운 처벌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주사회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고 해도 언제나 선동의 주동자로 지목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추방의 위협 아래 놓인 것이 이방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방인의 삶은 한 사회에 포함되는 동시에 배제되는 것이며, 아감벤의 말을 빌리자면 국민주권 국가에서 ‘벌거벗은 삶’은 허용되나 정치적 권리는 소멸된 삶이라고 할 수 있다(아감벤 2008, 223 참조). 그런 의미에서 유럽의 이방인은 아감벤이 말하는 것처럼 ‘호모 사케르들’인 것이다.⁶⁾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방인이 다르기 때문에 유럽 사회에서 분리되

6)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에서 추방의 양가성, 즉 포함하면서 배제하는 양가성을 지적하면서 신성함, 사케르적 삶의 양가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아감벤 2008, 164).

고 배척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근대 서구사회에서 국민주권 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처음에는 그 사회에 포함되었으나, 또다른 사회적 필요조건에 의해 전략적으로 타자화되고 소외되었으며, 그런 식으로 유럽 사회에서 이방인의 존재 형식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짐멜이 통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서구 근대 국민국가가 시작되면서 이주민들은 마침내 거주지의 자유를 얻었지만 또한 19세기 말 그들을 이방인으로 철저히 소외시킨 것도 국민주권 국가의 모형 안에 내재된 신화, 즉 출생과 국적 간의 연속성이었던 것이다(아감벤 2008, 250 참조).

그런 의미에서 지그문트 바우만은 짐멜의 사유를 이어받아, 이방인을 혐오하고 특정 인종을 타겟화하여 배척하는 유럽의 인종주의—특히 반유대주의를 예로 들어—를 서구적 “현대(성)의 세계관 및 관행과 공명하는 것”(바우만 2013, 130)이라고 논파하고 있다.

실제로 서구의 국민(민족)국가가 형성된 이래 이방인은 이주민으로 살고 있는 주류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공격받기에 가장 간단한 목표물이었다. 특히 그 사회에 제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협들이 나타날 때, 이 위협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반이방인 감정이 고취되는 것이다. 19세기 말 변질된 민족주의가 부추긴 반유대주의 감정은 짐멜 식의 반이방인 감정의 전형을 보여준다. 가령 프랑스의 드레퓌스 사건이라든지 독일의 유대인 공민권 박탈 운동 등은 150년간의 (서)유럽사회에서 시민으로서 포함되어 있었던 이주민, 그중에서도 서구 사회의 전통주의와 대척점에 있던 유대인에게 위협의 원인을 돌리고 이들을 배제 및 추방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바우만 2013, 93-95 참조).⁷⁾ ‘이방인-선동꾼’의 낙인찍기는 이방인에게 가장 괴로운 불행이지만, 주인사회가 자신의 내부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에 대한 적대감의 출현은 서구의 근대국가의 체계와 질서의 불안전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7) 바우만에 따르면 현대적 자본주의의 질서에서 금권을 장악한 유대인은 여러모로 현대성의 구현물이었고 현대성 및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전통주의 및 앙시앙 레짐의 세력에게 최우선시되는 표적이 된다.

그러나 아직 이방인에 대한 혐오가 홀로코스트로 흐르기 전에 유럽 사회와 이방인의 관계를 고찰한 짐멜은 마치 마지막 당부처럼 이방인 또한 그 사회의 일부임을 강조한다.

이방인은 비록 비유기적으로 집단에 덧붙여져 있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집단의 유기적 구성원이다. 집단의 통일적 삶은 이러한 요소의 특별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짐멜 2005, 88)

결론적으로 짐멜은 하나의 집단이 동질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듯해도 그 안에는 상이한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름이 함께 작용해서 유럽 사회를 표상하는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럽 지역은 언어에서부터 종교,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철학과 학문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다른 문화와 교류하고 ‘다른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시대마다 유럽적인 것, 유럽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동질성을 이루어왔다는 점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짐멜의 이방인 사유는 유럽 사회에서 거주민으로 살고 있으나 사회적인 삶에서는 주인집단의 필요에 따라 쉽게 ‘배제’되었던 이방인-이주민의 운명을 조명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이방인의 존재 의의를 밝히고 이들의 사회적 수용의 필연성을 주시시키고 있다. 그것은 유럽 사회의 정체성이 오랜 역사에서 보듯 이질적인 것이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통찰한 데서 나온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유럽 사회에서 이질적인 존재/문화를 타자화하여 단순히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유럽적 정체성에 빈곳을 남기고 유럽 사회의 통일성을 균열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유럽 사회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포증은 인종주의로 급진화되었고 이어서 유럽의 파국을 가져온 2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었다. 짐멜의 이방인에 대한 고찰은 1930년대의 인종주의로 흐르기 전의 마지막 경고였는지도 모른다.

Ⅲ. 이주민 소외의 내적 배제의 메커니즘: 발리바르의 이방인론

물론 오늘날 통합유럽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반이방인-반이주민 정서는 1세기 전에 점점 극단화되어 결국 홀로코스트로 귀결되면서 유럽을 파멸로 이끌었던 그것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유럽에서 목격되는 이난민에 대한 배타적 감정은 수백년간 지속되었던 반외국인-반유대인 감정과 구조적으로 유사성을 보인다. 가령 일찍이 짐멜이 지적한 것처럼 유럽 사회는 사회적으로 어떤 위기의식이나 불안감, 위협이 나타날 때 그것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이방인을 희생양으로 찾는 경향이 있는데, 2008년 이후로 가시화된 유럽 경제의 위기, 실업을 증가, 테러, 시리아 난민 대량 이주 등으로 증폭되고 불안감은 그 원인을 찾아내라는 사회적 목소리에 손쉽게 ‘이주민들’을 그 사회의 ‘적대자’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⁸⁾ 다른 점은 이번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럽 사회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아프리카인, 아랍-이슬람인이 그 대상이라는 점이다.⁹⁾

현재 유럽에 나타나고 있는 반이주민 정서를 주목하고 있는 발리바르는 이를 이종공포를 넘어선 ‘인종주의’로 규정짓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대 인종주의는 근본적으로 문화적이거나 사회학적인 차이의 도착에 근거를 둔 단순한 타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의 개입에 의해 중개된 타자와의 관계이다. 또는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여기에서 개념화될 필요가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의식적인 차원이다), 그것은 타자와의 관계로 투사하고 우회적으로 경험된, 국가

8)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유럽 사회에서는 극우주의 정당의 급속히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으며, 이들 정당들의 공통적인 정치적 노선은 반이주민주의이다.

9) 물론 보다 세밀하게 접근한다면 19세기 말 제노포비아(타자)가 나타난 시대적 맥락과 오늘날의 그것은 다르다. 당시에는 ‘변질된 민족주의’가 제국주의의 형식으로 확장되면서 소수자 집단을 억압하는 것이었다면(홉스봄 1994, 145 이하 참조), 실제로 오늘날 EU 내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정치적 리더쉽, 실업, 복지, 교육, 개인적 관계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또한 오늘날의 이주민에 대한 반감은 유럽연합에 대한 반감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송태수 2011, 15-58 참조).

와의 갈등적 관계다.(발리바르 2010, 289)

국가의 개입에 의해 만들어지는 타자와의 관계에 바탕을 둔 인종주의의 대표적 예는 히틀러의 나치즘에 의한 반유대주의, 홀로코스트이다. 발리바르는 현재 유럽에서 보여지는 반이민자 정서, 반외국인 정서가 확산되는 원인을 다 각도에서 조명하지만, 그중에서도 반이민주의가 유럽연합의 제도적 차원에서 또 국가적 차원에서 중개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Vgl. Balibar 2015, 2-5). 여기서 반이주민 제도로 여겨지는 것은 특히 1992년 유럽연합이 ‘초국가적 정치적 연합체’로서 출범하면서 도입하게 된 ‘EU 공동이민 정책’과 ‘유럽 시민권’ 제도를 가리킨다.¹⁰⁾ 이런 관점은 유럽통합을 지지하는 여타 연구자들에 의해서 공유된 바 있다. 앤소니 기든스는 유럽 공동의 이민 정책을 비유럽인에 대한 일종의 ‘반이민’ 정책으로 간주하면서 세계화에 반하는 유럽연합의 “기이하면서도 역설적인” 정책의 예로 꼽는다(기든스 2014, 174 이하 참조). 또 리처드 영스과 같은 유럽연구가는 이 외국인 이민정책이 야말로 유럽연합의 사회통합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일찍이 간파하면서 “유럽의 정부들과 브뤼셀에 기반한 EU 기관들 사이에 내적 합의는 EU의 외국인 정책에서 그 끝에 도달했다.”(Youngs 2010, 4)고 단언한 바 있다. “이상하고 똥한 숙명주의와 지나친 자신감이 EU의 외국인 정책에 독을 넣은 것이다. 그것은 너무 퇴행적이어서 국제적 질서가 위협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정책으로 가득차 있다는 사실로부터 어떤 이득도 보지 못할 정책”(Youngs 2010, 6)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에 직면하여 다음에서는 유럽연합의 이 두 정책 및 제도가 실질적 차원에서 어떻게 발리바르가 말하는 반이민주의 및 인종주의를 시민사회에 중개하게 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EU의 공동이민정책은 기본적으로 비유럽권 출신의 외국인의 이주를 규제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었다. 1992년 단일시장이 완성되면서 역내 회

10) 「정치체에 대한 권리인가 아파트헤이트인가?」에서 발리바르는 유럽 시민권과 이민정책의 문제점을 유럽의 ‘아파트헤이트’로서 지적하고 있다(발리바르 2010, 85-116 참조).

원국 사람의 이동이 활성화되었다. 회원국 내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은 유럽 공동의 시민권 도입을 목표로 하는 EU 연합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했다. 문제는 역내 이민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냉전의 종식(1989)과 이어서 터진 유고 내전(1992)으로 인해 비유럽연합 국가 출신의 이민자 및 망명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난민에 대한 규제로서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이민 정책이 요청되었고 EU는 쟁쟁 구역 내 더블린 규정을 두어 비유럽인 이민을 통제하는 지침을 마련한다(이규영 2004, 114 이하 참조). 이어서 1997년 암스테르담조약은 EU의 정치적 통합을 더욱 견고히 할 목적으로 제도적 조항을 마련하고 이민 및 망명에 대한 새로운 공동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공동이민정책의 핵심은 역내 회원국 국민의 경우 다른 회원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동시에 주거의 권리와 선거권을 보장하지만 역외 국가 출신의 이주민의 경우 유럽연합 국가 내에 아무리 오래 거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거권에서도 선거권에서도 차별을 두는 데 있다. “내부적으로는 자유주의적 가치에 따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국경을 개방하지만, 공동체의 외부국경은 내부의 안전과 안정유지라는 차원에서”(이선필 2008, 12) 더욱 강력히 통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민정책에 대해 많은 유럽주의자들은 ‘유럽의 요새화’를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유럽연합은 기이하면서도 다소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외부세계에서 유럽연합으로 들어오는 이민은 철저하게 규제 또는 제한하면서도, 유럽연합 내부에서의 이민은 적극 장려하고 있다.”(기든스 2014, 174).

여기에다가 리스본 조약 이후에는 불법이민자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2008년 불법체류자 본국송환 지침이 마련된다.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가 채택한 <제3국 불법체류자의 송환에 대한 회원국 내 공동 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일명 송환지침 Return Directive)>이 그것인데, 이 지침이 표방하는 바는 불법체류자의 송환을 효율적이고도 인도주의적으로 실행하자는 것, 그리고 편차가 심각한 각국의 불법체류자 송환 관련 정책을 EU에서 정한 ‘지침’으로 통합함으로써 EU 차원의 공동 송환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데 있다(심성은 2016, 33-34 참조). 이에 따라 회원국 각 국가의 국내법을 개정하도록 강제하고 불법체류자의 송환에 관한 EU 층위의 공동 조치를 마련하게 된다.

문제는 지침이 표방하는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몇몇 조항은 불법체류자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게 하고, 비유럽인의 ‘추방 기계 Deportation Machine’로서 활용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심성은 2016, 38 참조). 무엇보다 이와 같은 EU 공동의 층위에서 송환정책을 내세운 것은 다양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몇 년 전부터 급증하고 있는 북부 아프리카 출신 난민을 통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¹¹⁾ 최근에는 이 지침에 의존하여 시리아 난민을 소위 ‘안전한 제3국’ 터키로 돌려보내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런 까닭에 이 지침이 발표된 후 즉각 “유럽의 수치”(Dendel 2008, 315-320)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EU의 공동 이난민정책은 유럽적 가치를 훼손하는 반인도주의적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처럼 EU와 비EU 출신의 이주민들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배타적 이민정책은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 사이의 차이를 공식화하고 결국 잠재적인 갈등 요소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발리바르 2010, 274).

더욱 문제적으로 보이는 것은 같은 시기에 도입된 유럽시민권 제도의 부작용이다. 이 제도는 원래 로마조약 이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고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 이후 ‘국가 단위를 초월하는 연대적 행위의 가능성’(하버마스)을 희망하면서 명문화된 것이다. 한 국가의 시민권을 넘어서 유럽 차원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도화함으로써 유럽적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연대성을 함양하려는 것이다. 특히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 이후 유럽시민권 확대를 위한 정치적 제도적 기반이 공고화되면서 무엇보다 개별 시민권 보호를 유럽 공동체 차원의 단일시민권으로 확대 혹은 연계한 것이다(김은경 2004, 35 이하 참조). 원론적으로는 유럽의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또한 세계시민적 정신에 입각해서 그리고 탈중심화된 현대 행정 수단을 통해서 단일한 영토의 동등한 시민권으로 통합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11) 특히 2013년 여름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에 도착하기 직전 침몰한 람페두사 호 사건을 보라. EU는 이 송환지침에 따라 EU 차원의 입국 거부를 당하고 향후 운명은 이탈리아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졌다.

그러나 유럽 시민권의 형성은 암스테르담 조약의 항목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시민권을 보충한다는 점도 명시한다. EG 조약 제 2장 17조에서는 일명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는 권리임을 명시한 것이다(김은경 2004, 40 참조). 예를 들어 독일인이거나 프랑스인인 경우 유럽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유럽연합 시민권이 초국가적인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가 차원의 시민권을 근거로 하여 파생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유럽 시민권은 애초에 탈국가적 차원의 유럽 공동체 시민들의 평등한 권리를 지키는 시민권이라는 기대를 열었으나, 결론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시민권의 파생 효과에 지나지 않는”(황의조 2004, 214) 한계를 갖게 된다. 이로써 결국 EU 내부에 국가적 경계가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민족적 경계를 더욱 뚜렷이 드러내게 되는 역설을 낳게 된다(Balibar 2015, 3). 여하튼 이런 차별적 구조에 기반한 유럽시민권 제도에 의해 유럽에는 몇 가지 유형의 시민들이 나타나는데, 그 유형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그들의 국적국가에 살고 있는 회원국 국민들,
2. 하위 차원에서 역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회원국 국민들: 제한된 정치적 권리
3. 유럽연합 회원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역외권의 시민들: 이들은 분명 회원국의 경제적 사회의 일부를 이루지만 정치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
4. 연합국 내 불법체류자들 (황의조 2004, 215 참조)

네 번째 유형의 불법체류자는 차치하고라도 그밖에 세 유형의 시민들 사이에도 그들이 살고 있는 EU 국가 내에서 차등적 권리가 부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외국인 거주민들은 각 나라에서 다른 주권국가에 속하고 그런 경우 대개 그 나라의 국민들과 등가적인 소속의 권한을 향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호 인정의 대상이 되지만, 이 유럽연합의 시민권 차원에서는 오히려 내적 배제의 대상이 된다. 그 대상은 구체적으로 EU 공동이민법에서도

거주권을 규제받는 EU 권역 밖에서 온 이주민들로서 대개 값싼 육체 노동을 위해 유럽으로 건너오게 된 아프리카인, 그리고 아랍-이슬람인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들은 이주민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시민권에서도, 또 유럽시민권에서도 배제되고 경제적인 삶만 허용받은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같은 역내 회원국 출신이라 할지라도 부자 회원국 시민과 가난한 회원국 시민들 사이에도 차별적 권리가 확인된다. 동유럽 및 발칸반도 유럽 주민들은 선별적 입국 절차를 거쳐야만 잘 사는 회원국 국가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럽 시민권 제도에서도 이민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인 내에서도 차별이, 비유럽인에 대해서는 더한 차별이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럽인 사이에서도 차별적 상황이 목도되고 또 비유럽인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한 차별적 상황이 유럽연합의 두 제도에 의해서 촉진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발리바르가 앞서 말한 것처럼, 유럽인과 비유럽인, 주인사회와 이주민 집단 사이의 갈등 상황과 차별적 상황이 EU 차원의 공적 시스템에 의해 중개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 및 혐오 감정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슬람인-이주민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2차대전 이후 이슬람인들이 유럽 내 이민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유럽 내 높아 가는 실업율과 계속되는 테러의 잠재적 원인자들로 간주되고 있고, 최근에는 또한 무슬림의 높은 출산율과 정착사회에 동화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유럽적 정체성’을 파괴하는 가장 큰 요인들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발리바르에 따르면 위기의 정후에 휩싸인 유럽이 마치 공동체 내부에서 위기의 정후를 떠넘길 희생양을 찾는 것처럼 이슬람 이주민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Balibar 2015, 3). 이와 같은 방향에서 유럽적 정체성의 위기 담론이 정치적 좌파와 우파를,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설득력을 획득하고 있고 정체성 위기론을 거론하며 보수-극우정당들이 내세운 인종주의적 범안인 히잡 금지법을 도입한 것만 봐도 유럽 사회 내 반이슬람주의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¹²⁾

12) 프랑스에서는 2004년에 히잡 금지 법안이 채택되었고 현재 스위스, 노르웨이, 벨기에 등에서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정체성은 많은 부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유럽적 정체성은 유럽연합 회원들 사이의 연대성뿐만 아니라 유럽과 비유럽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왔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2008년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최근의 난민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EU의 기관들은 연대성을 바탕으로 공동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상당 부분 국가적 에고이즘을 보여주었을 뿐이다.¹³⁾ 이와 같은 국가적 우위성이 지속된다면, EU의 중심 브뤼셀은 그저 “지속적으로 위기에 흔들리는 낯선 작물 fremdartiges, dauerhaft krisengeschütteltes Gewächs”(Röper 2015, 45)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유럽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슬람포비아는 짐멜의 의미에서 유럽 사회가 강박적으로 만들어낸 ‘이방인’에 대한 차가운 감정과 다르지 않다. 과거에는 유대인이 유럽인의 대표적 이방인이자 이웃이었다면 이차대전 이후 이슬람인이 바로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이다. 짐멜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슬람인은 유럽사회 안에 살면서 ‘가깝고도 먼’ 존재로 받아들여졌고, 허잡과 모쉴로 상징되는 이슬람 특유의 문화와 전통은 과거 유럽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느꼈던 것처럼, 주인사회에 결코 완전히 귀속되지 않는 ‘이방인의 삶의 형식’을 매우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결코 동화될 수 없는, 또 결코 환원될 수 없는 타자성’의 상징으로 인해 이슬람 이주민은 공동체 내부의 위기의 징후들을 떠넘기기에 적합한 ‘이방인’으로 보일 수 있다(발리바르 2015, 3 참조). 짐멜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사회적 위기를 떠넘길 희생양은 집단의 완전히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회에 정주하고 있지만 다른 존재, 이웃이면서도 정착사회에 완전히 귀속되지 않는 삶의 형식을 보여주는 이방인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19세기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혐오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은 이주민 소외의 ‘내적 배제’의 메커니즘이다(발리바르 2010, 287 참조).

다시 말해 소외의 대상과 그 주체가 서로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외재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삶의 공간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13) 이난민 사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외곽에 놓인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감당해야 했던 부담을 보라.

이웃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주민-이웃이야말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사회적 위협들에 대한 선동자로서 지목될 수 있는 것이다. 즉 한 사회 내부에 들어와 있는 특정한 집단을 외부인, 즉 타자로 배제하는 식의 형태를 띠는 것이다. 그러는 한 현재 유럽에서 관찰되는 이슬람포비아는 한 세기 전 반유대주의로 발전했던 그 이중공포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은 “[...] 근대 시초부터 단지 외국인 혐오증과 외국인에 대한 공포만이 아니라 이웃—우리와 가까우면서 동시에 다른 존재자인—에 대한 공포와 증오로서의 인종주의를 조장했던 바로 그 공형상인 것이다.”(발리바르 2010, 287)

IV. 결론

이상에서 ‘하나의 유럽’이라는 기획을 위기에 빠뜨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서 최근 유럽 사회에 본격화되고 있는 ‘반이방인-반이주민 감정’을 살펴보았다. 이주민 소외의 문제는 결국 유럽의 정체성 형성에도, 유럽의 사회적 통합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찍이 유럽 사회에서 이주민, 이방인의 존재 의미에 대해 주목한 게오르크 짐멜도 강조한 것처럼 이주민 또한 유럽 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유럽 문화의 공통된 근원으로 간주되는 기독교 문화도 또 합리주의 사유도 이주민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흡수하고 번역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헬름라트 2011, 25 이하 참조). 유럽 사회에 낮은 존재로 살고 있는 이방인, 즉 이주민은 다른 문화권 출신이지만 유럽사회의 일부이며 ‘집단의 통일적 삶’을 구현하는 데에도 특별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 또한 유럽을 구성해 온 유럽적 정체성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럽 사회가 의식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이방인을 배제하는 내적 배제의 메커니즘이야말로 오히려 ‘하나의 유럽’이라는 정체성에 파괴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현재 유럽을 휩쓸고 있는 극우주의적 프로파간다는 유럽 안보와 유럽의 정체성의 위기를 이주민의 탓으로 돌리지만 이런 주장은 위기의 원인을 이방인에게 돌리는 유럽적 강박, 시대를 넘어서 나타나는 유럽적 강박에 다름 아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난 세기 이처럼 그 사회의 일부였던 이주민을 배제함으로써 결국 유럽적 삶의 정체성이 오히려 위협받고 유럽 사회가 파국으로 치달았다는 점이다. 오늘날 반이방인-반이주민 감정은 1930년대만큼 극단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유럽적 가치 및 유럽 사회의 통일성을 해치고 ‘하나의 유럽’을 위한 통합유럽의 프로젝트를 위기에 빠뜨리기에는 충분히 위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1차문헌

- 발리바르, 에티엔(2010): 우리, 유럽의 시민들?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재발명 (진태원 옮김). 후마니타스.
- 짐멜, 게오르크(2005): 이방인.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김덕영, 윤미애 옮김). 새물결.
- Balibar, Etienne/Blottiere, Mathilde/Portevin, Catherine(2015): Fremde — eine europäische Obsession. movements. Journal für kritische Migration- und Grenzregimeforschung 1 (1). 1-8.
- Simmel, Georg(1908): Exkurs über den Fremden. In: Soziologie. Untersuchung über die Formen der Vergesellschaftung. Berlin. 509-512.

2차문헌

- 구연정(2015): 독일 중심의 유럽과 유럽의 위기. 독일문학. 제134집 56권 2호. 107-127.
- 기든스, 앤서니(2014): 유럽의 미래를 말하다(이종인 옮김). 책과함께.
- 김은경(2004): 유럽연합 시민권의 개념과 그 법적 의미. 『통합유럽과 유럽시민권』. 높이깊이. 15-47.
- 뒤로젤, 장 바티스트(2003): 유럽의 탄생(이규현 옮김). 지식의 풍경.
- 바우만, 지그문트(2013): 현대성과 홀로코스트(정일준 옮김). 새물결.
- 송태수(2011): 현대 유럽의 제노포비아 현상 비교연구: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 비교. 『유럽의 사회통합과 사회정책』(한국유럽학회 편). KSI 한국학술정보(주). 15-58.
- 심성은(2016): EU 송환지침과 프랑스 및 독일의 국내 이민법 개정: 새로운 베를린 장벽의 건설?. 2016 통합유럽연구회 겨울 심포지엄 자료집. 33-51.
- 아감벤, 조르조(2008): 호모 사케르(박진우 옮김). 새물결.
- 오창룡(2016): 유럽회의주의 확산과 프랑스 공화당의 노선 변화. 제10회 한국유럽학연합학술대회: 21세기 한-EU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인식과

- 협력모델의 모색. 613-629.
- 윤성원(2016): 영국과 EU: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영국의 유럽회의주의의 태도를 중심으로. 제10회 한국유럽학연합학술대회: 21세기 한-EU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인식과 협력모델의 모색. 587-605.
- 이규영(2004): 쉥겐조약과 유럽시민권. 『통합유럽과 유럽시민권』. 높이깊이. 103-123.
- 이선필(2008): 유럽연합 공동이민망명정책의 발전과 배타성 연구. EU연구 23호. 3-27.
- 이용일(2009): 다문화시대 고전으로서 짐멜의 이방인 새로 읽기: 새로운 역사적 이민연구의 단초. 독일연구. 제18권. 179-209.
- 장선화(2016): 북유럽의 EU회의주의와 정치적 동원, 제10회 한국유럽학연합학술대회: 21세기 한-EU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인식과 협력모델의 모색. 607-612.
- 최윤영(2013): 초국적 이방인의 보호받지 못한 삶과 죽음 - 나치 수용소 유대인 생존자들의 글을 중심으로. *Trans-Humanities* 6(2). 29-58.
- 헬름라트, 요하네스(2011): 중세의 유럽. 기독교 유럽의 문제. 『유럽의 정체』.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1-37.
- 홉스봄, E. J.(1994):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강명세 옮김). 창작과비평사.
- 황의조(2004): 유럽시민권과 문화적 갈등. 『통합유럽과 유럽시민권』. 높이깊이. 201-231.
- Becker, Markus(2015): Ach, Europa. In: *Der Spiegel*, 25. Dezember 2015.
- Delanty, Gerard(1997): *Models of Citizenship: Defining European Identity and Citizenship*. *Citizenship Studies* Vol. 1, No. 3.
- Dendel, Petra(2008): Die Rückführungsrichtlinie der Europäischen Union: eine Schande für Europa oder das kleinere Übel? In: *Gesellschaft-Wirtschaft-Politik(GWP)*, Nr. 3. 315-320.
- Geuss, Raymond(2016): Woher kommt die Wut der Briten? Die Gründe für den Brexit. In: *Süddeutsche Zeitung*, 28. Juni 2016.
- Kirsch, Martin(2005): Europazweifel als Kennzeichen des Europäers: Denis

Rougemonts intellektuelle Konstruktion Europas. In: Europa und die Europäer. Quellen und Essays zur modernen europäischen Geschichte. Stuttgart. 218-223.

Röper, Nils(2015): Wir brauchen eine europäische Identität. Der Tagesspiegel, 27. 10. 2015.

Rougemont, Denis de(1961): Europa. Vom Mythos zur Wirklichkeit, München.

Schütz, Alfred(1944): The Stranger: An Essay in Social Psychology. In: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49. No. 6. 499-507.

Sloterdijk, Peter(2002): Falls Europa erwacht. Frankfurt a. M.

Youngs, Richard(2010): Europe's Decline and Fall. The Struggle against Global Irrelevance Profile Books.

Zeit Online(18. 3. 2016): EU und Türkei einigen sich auf Flüchtlingspakt. (URL: <http://www.zeit.de/politik/ausland/2016-03/eu-und-tuerkei-einigen-sich-auf-fluechtlingspakt>)

Zusammenfassung

Die Identität eines integrierten Europas und die Immigranten

– Eine Studie über die Fremden-Diskurse von Georg Simmel und Étienne Balibar

Gu, Yeon Jeong (Seoul National Uni)

Diese Arbeit versucht, die strukturelle Kontinuität zwischen der Fremdenfeindlichkeit in Form des Antisemitismus, der etwa vor einem Jahrhundert nicht nur in Deutschland, sondern auch in ganz Europa dominiert hatte, und der Einwandererfeindlichkeit, die gegenwärtig das europäische Projekt der EU in Frage stellt, zu erläutern. Wie der Fall des Brexit zeigt, hat die Einwandererfeindlichkeit das Potential dafür, das Konzept eines ‚integrierten Europas‘ ernsthaft in Gefahr zu bringen.

Zunächst wird das Essay von Georg Simmel Exkurs über den Fremden analysiert, das das Verhältnis zwischen zuwandernden Personen und den Einheimischen in der europäischen Gesellschaft bahnbrechend abgehandelt hat, und davon ausgehend wird der Fremden-Diskurs von Etienne Balibar behandelt: Laut Balibar wurde die Xenophobia bzw. ‚anti-Immigrant sentiment‘ in den letzten Tagen in Europa auf der EU-Ebene durch eine ‚rassistische Politik‘ betrieben.

Balibar diagnostiziert, dass vor allem die Unionsbürgerschaft und eine europaweit gemeinsame Einwanderungspolitik, die eigentlich für die Erweiterung der europäischen Identität und Sicherheit eingeführt wurden, eine weitere Grenze ziehen, die nun auch quer durch die Gruppe der Ausländer verläuft. So sind z.B. muslimische Immigranten „fremder als andere Fremde“ (Balibar). Die EU als supranationalistische Institutionalization führte das Konzept der europäischen Bürgerschaft im Rahmen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aber sie konnte nicht vermeiden, dass dies in der Konsequenz eine Ausschließung der Ausländer mit sich brachte. Nun werden in einer gesellschaftlichen Krise ähnlich der in den 1930er Jahren Sündenböcke innerhalb der Gemeinschaften gesucht, nur sind es diesmal nicht die Juden. Stattdessen werden Zuwanderer muslimischen Glaubens als das nicht assimilierbar scheinende Andere stigmatisiert.

In diesem Sinne wird die These von Simmel, dass der Fremde je nach Bedarf der Gesellschaft und Gemeinschaft produziert wird, bei Balibars Fremden-Diskurs noch einmal aufgegriffen. Diese „europäische Obsession“, den alten Mechanismus der Fremden-Ausschließung zu beschwören, stellt letztendlich eine Gefahr für die Identität eines integrierten Europas dar.

주제어: 통합유럽, 이민자, 이방인, 짐멜, 발리바르, 내적 배제

Schlüsselbegriffe: das integrierte Europa, Zuwanderer, der Fremde,
Simmel, Balibar, innere Ausschließung

필자 E-Mail: ancel@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6. 10. 20, 논문심사일: 2016. 11. 15, 게재확정일: 2016. 11. 28.